

碩士學位 請求論文

英語 強調構文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泰 洪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 教育 專 攻

鄭 圭 弼

1994年 8月 日

英語 強調構文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泰 洪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6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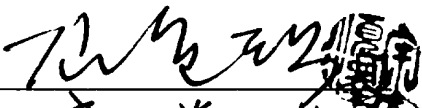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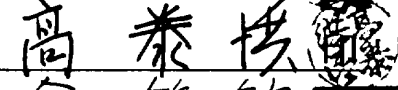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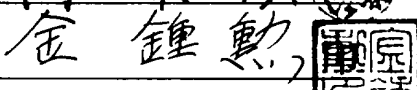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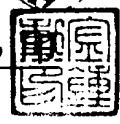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鄭 圭 弼



鄭圭弼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高 泰 洪 
審査委員 金 鍾 勳 


<抄錄>

英語 強調構文에 관한 研究

鄭 圭 弼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高 泰 洪

본 논문은 한 문장 안의 특정어구를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며 우세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쓰이는 영어의 강조구문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강조의 다양한 표현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강조사, 확장사, 완화사와 같은 강의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서술하는 내용이나 특성의 정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문장 안의 구성소를 보통의 경우와는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어순도치에 의한 방법과 구조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강한 주장의 힘을 지니며 대개 답을 기대하지 않는 질문을 일컫는 수사의문문에 의한 강조가 있다.

분열문은 문장의 특정요소를 택하여 그것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두드러지게 하는 특수한 구문이다. 'It is'에 의해서 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재귀대명사가 비재귀적인 용법으로 사용,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며, 조작사로서의 조동사가 핵강세를 받아 강조의 기능을 한다. 동일 항목을 반복함으로써 강조를 표현하는 반복어법이 있다. 이외에 일반복수와는 달리 정도의 강함이나 넓이, 연속 등을 나타내기 위해 보통 복수로 하지 않는 것을 복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의미를 강조하고자 쓰이는 것을 강조복수라 한다.

결론적으로 화자가 문장의 어떤 특정요소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의도하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느끼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바램에서 비롯된다.

목 차

초 록

I. 서론	1
II. 강조구문의 형태	3
1. 강조어구에 의한 강조	3
1) 강의부사에 의한 강조	3
2)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의한 강조	10
3) 의문문의 강조	14
4) 부정 의미의 강조	15
5) 기타의 강조	15
2. 어순도치에 의한 강조	18
1) 목적어를 문두에 두는 강조	19
2) 보어를 문두에 두는 강조	20
3) 부사류를 문두에 두는 강조	21
4) 부정어를 문두에 두는 강조	23
3. 수사의문문에 의한 강조	24
III. 분열문을 통한 강조	27
1. 분열문의 정의	27
2. 분열문의 초점	30
1) 분열문의 초점 위치에 올 수 있는 요소	30
2) 분열문의 초점 위치에 올 수 없는 요소	31

3. 의사분열문	32
1) 의사분열문의 구조	33
2) 의사분열문의 초점	34
4. 분열문 속의 변이형	36
IV. 기타의 강조구문	40
1. 재귀대명사에 의한 강조	40
2. 조동사에 의한 강조	44
3. 반복어법에 의한 강조	49
4. 복수형에 의한 강조	52
V. 교재 내의 강조구문의 예문 분석	54
1. 강조어구에 의한 강조형 예문	54
2. 어순도치에 의한 강조형 예문	57
3. 수사의문문에 의한 강조형 예문	58
4. 분열문에 의한 강조형 예문	59
5. 기타의 강조형 예문	60
6. 강조구문 분석	62
VI. 결 론	65
참고문헌	67
영문초록	69

I. 서론

인간의 생각은 말과 글이라는 표현방식을 빌어 제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화자의 의사전달, 정보전달이 언어의 주된 기능이라면 자신의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훨씬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발화를 할 때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요소, 즉 문장 가운데 특정한 어(구)를 음운이나 통사적 방법에 의해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하려고 한다.

강조는 본래 의미론상의 개념이며 영어에서 한 문장 속의 특정어(구)를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며 우세하게 부각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구어체 영어 특유의 강조 방법이라 할 만한 강세, 억양, 조음 방법에 의한 방법이나 단어의 선택 및 각종 문법적인 형의 선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강조구문이 실제 영어교육 현장에서 자주 쓰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종래 강조의 다양한 표현에 대하여 종합, 정리하고 이러한 구문에 따른 유형별 용례를 제시한 구체적 사례는 비교적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장에서 그 사용 빈도수가 많고 용법도 여러 가지인 강조구문의 표현 방법을 고찰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현장교육에서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현재 필자가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교재의 강조구문 예문을 조사, 정리함으로써 실제 학습자의 영어 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 논문은 제2장에서는 강조어구에 의한 강조, 어순도

치에 의한 강조, 그리고 수사의문문에 의한 강조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이른바 'It --- that강조구문'이라 불리며 문어체 영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분열문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정의 및 초점과 의사분열문, 그리고 분열문 속에 나타나는 여러 변이형을 고찰하여 보겠다. 제4장에서는 기타 자주 접할 수 있는 강조의 형태인 재귀대명사, 조동사, 반복어법 및 복수형을 활용한 여러 종류의 강조의 표현방법에 대하여 다루며, 제5장에서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중인 교과서의 강조구문을 앞에서 언급한 유형으로 묶어서 예문을 분류, 분석한 후, 제6장에서 앞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겠다.



II. 강조구문의 형태

화자가 문장 속의 특정 요소를 강조하는 방법에는 대체로 세 가지가 있다. 강조어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어순을 도치시키는 방법, 그리고 수사의 문문을 사용하여 강조하는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이장에서는 이들을 차례대로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강조어구에 의한 강조

1) 강의부사에 의한 강조

화자가 문장 가운데 특정 요소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강조표현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으로 강의어(intensifier)를 이용한 방법을 들 수 있다. *very, (very) much, somewhat, rather, a great deal, at all, actually, really* 등의 강의어를 이용하여 강조의 뜻을 더욱 부각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a. The job was *very* easy / difficult.
b. She writes *(very) much* better / more easily than she used to.
c. That was a *much / far / a great deal* easier job.
2. She has *certainly* been enthusiastic about her work.
3. She hasn't been enthusiastic *at all* about her work.
4. He *completely* ignored my request.
5. It was *truly* a memorable occasion.

이같은 강조표현은 일상의 흔한 언어 생활에서 더욱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마움을 표현할 때 흔히 *very much*나 *a lot* 등의 강의어를 써서 *thank you very much* 혹은 *thanks a lot*이라 하고, 사과를 할 경우에도 *very sorry* 또는 *terribly sorry*라 함으로써 강조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어떤 사실을 단언할 때에도 아래와 같이 흔히 *certainly*나 *surely* 등을 써서 자기가 진술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하고 그 특성의 정도를 높이려고 한다.

6. a. Will you help me? — *Certainly* I will.

b. *Surely* you remember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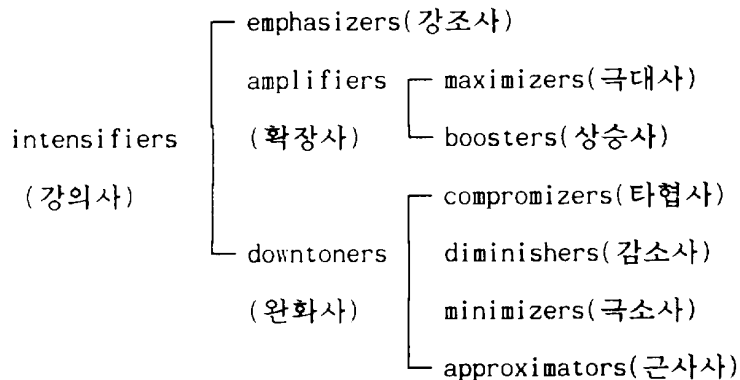
이와같은 강의어의 직접적인 기능은 서술하려는 내용이나 특성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지만 강조의 효과와 정도는 강의어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문학작품에서는 강의어를 이용하여 인물묘사를 하기도 한다. 또한 강의어는 문어 보다는 구어에 더욱 빈번히 쓰이고 있으며, 다음처럼 몇 개의 강의어가 겹쳐 나오기도 한다.

7. The new law *certainly* may *possibly* have *indeed* been *badly* formulated. [= It is *certainly* true that what I say now is *possible*: the new law may *indeed* have been *badly* formulated.]

강의어는 통사적으로 형용사, 부사, 동사를 수식하고, 의미상으로는 이 품사들의 정도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는 부사의 한 부류로서 전통문법에서

는 정도부사라고 불리워져 왔다.

Quirk and Greenbaum(1973)은 이러한 강의어를 정도의 극대화를 나타내는 강조사(emphasizer), 그리고 어떤 상정된 기준으로부터 정도를 높이는 확장사(amplifier), 또 상정된 기준으로부터 정도를 낮추는 완화사(downtoner)로 대별하고 이것을 다시 7가지의 하위부류로 구분한다.¹⁾



여기서 강조사는 전달내용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음 강조사들이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actually, certainly, clearly, definitely, indeed, obviously, plainly,
really, surely, for certain, for sure, of course, frankly, honestly,
literally, simply, fairly, just, etc.

대부분의 강조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술어(predicate)의 앞에 오나 for sure, for certain은 예외적으로 뒤에 온다. 또 fairly를 제외한 대부분의 강조사는 부정된 동사구에 선행할 수 있다.

1) R. Quirk and S. Greenbaum(1973), *A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 p.214.

8. They will warn us *for sure*.
9. They *fairly* danced for joy at the news.
- *They *fairly* didn't dance for joy at the news.

확장사는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그중에서 극대사는 척도의 상한을 나타낸다. 따라서 극대사는 한국어의 '전적으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상승사는 척도의 상위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어의 '매우'에 해당하는 일이 많다.

극대사와 상승사의 예와 문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극대사: absolutely, altogether, completely, entirely, fully, most, quite, perfectly, thoroughly, utterly, in all respects, etc.

10. I can *perfectly* see what you mean.
11. The house was *entirely* hidden by the trees.

상승사: badly, deeply, heartily, much, severely, so, violently, well, a good deal, a great deal, etc.

12. I *so* wanted to see her.
13. I can *well* understand your problem.

다음으로 완화사는 정도를 완화하는 효력을 지닌다. 완화사는 의미상 타협사, 감소사, 극소사, 근사사의 네 개의 하위부류로 나뉜다. 타협사는 정도를 가볍게 낮추는 효력만 갖고 있으며, 감소사와 극소사는 정도를 상당히 낮추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근사사는 동사가 표현하는 내용에 거의

같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차례대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타협사: kind of / sort of, quite / rather, more or less, etc.

14. I *kind of* like him (informal).

15. I *quite* enjoy the party, but I've been to better ones.

감소사: partially, partly, slightly, somewhat, in part, to some extent, a little, etc.

16. The news puzzled me *somewhat*.

17. I know them *slightly*.

극소사: a bit, barely, hardly, little, scarcely, at all, in the least, in the slightest, etc.

18. I don't enjoy it *in the least*.

19. Do you like her? — *A bit*.

근사사: almost, nearly, practically, virtually, as good as, all but, etc.

20. I *almost* resigned.

21. He *as good as* promised it to us.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강약어들 가운데 서술의 내용이나 특성의 정도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강약어로는 아무래도 very, much를 들 수 있다. 이제 잠시 강약적 용법의 very 와 much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very는 형용사, 부사의 원급을 수식하고 (very) much는 동사를 수식한다. 그렇지만 형용사의 비교급을 수식하는 경우에는 much, far, even, still 등의 수식을 받아야 하며, too 다음에 형용사가 이어지는 경우에도 too+형용사는 much, far, only, rather 등의 수식을 받는다. 이들의 예를

차례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22. a. It's *very* foolish to smoke.

b. I like it *very much*.

23. a. My father is **very / much* older than your father.

b. This book is **very / much* too difficult for me.

한편 형용사, 부사의 원급은 *very*로 수식하지만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a-로 시작하는 형용사(*afire, afraid, afloat, alike, alive, alone, ashamed, aware, etc.*)는 예외적으로 *much*가 수식한다. 다만 이 경우 *afraid, alike, ashamed*는 구어의 영향 때문에 *very*를 써도 무방하다. 또한 *awake, asleep* 등은 *very, much* 아닌 다른 강조어의 수식을 받는다.

**very / *much awake* → *wide awake*

**very / *much asleep* → *fast asleep*

과거분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much*의 수식을 받는다. 그렇지만 동사적 성질을 잃고 완전히 형용사화한 과거분사(*amused, ashamed, contented, delighted, disappointed, excited, frightened, interested, pleased, satisfied, surprised, tired, worried, etc.*)는 (24)에서처럼 *very*로 수식한다.

지금까지 강의부사로 쓰이는 *very*와 *much*에 대해 고찰해 보았거니와 이들 이외의 영어에 흔히 쓰이는 강의부사로는 아래 (25)를 들 수 있다. 그

리고 (26a-e)의 예문에서 보듯이 속어에서는 형용사가 부사의 대용으로 강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일도 많다.²⁾

24. a. She was *much* misunderstood by him.
b. Jane is *very* tired of listening to his lecture.
25. a. I *personally* have never been to New York.
b. Is the water hot? — Not *really*.
c. She was *painfully* shy at the age of 16.
d. Their country is *unbelievably* beautiful.
e. The test was *surprisingly* easy.
26. a. She was *precious* angry.
b. It is *mighty* easy.
c. The wind was *dead* against us.
d. He's a *jolly* good fellow.
e. He's *stark* mad, I can tell you.

한편 강의어로 사용되는 부사는 그렇지 않은 부사와 형태상으로는 동일하나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강의부사는 형식과 의미상 양태부사나 문장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

27. a. He spoke *bitterly* about their attitude.
b. He *bitterly* regretted their departure.

2) 조성식(편집주간)(1990), 「영어학 사전」, 신아사, p. 385.

위 (a)의 *bitterly*는 *in a bitter way*라는 의미의 양태부사이고, (b)의 그것은 강의부사로 *regret*을 수식해서 *very much*의 뜻을 갖는다.

강의어는 사회계층에 따라 그 용법이 다를 수도 있다. 가령 *I'm so glad that you've come* 과 *He is so charming*의 경우 *so*는 주로 부인들 사이에 사용되는 강의어이다. 또 단순형용사를 강의어로 사용하는 것은 요즘에는 구어에 많으며 일반적으로 교양있는 사람들 사이의 영어에서는 *-ly* 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³⁾

기타 강의어적 표현으로는 두개의 형용사가 *and*로 결합되어 '형용사+*and*'가 다음에 오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nice and cool*은 *cool*의 의미를 강조하는 용법이며 결국 *very cold*의 의미가 된다.⁴⁾

'형용사+*and*+형용사' 구문으로 강의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8. a. I was *good and tired*.

b. His father was *good and mad*.

c. It's *nice and warm*.

cf. I felt it was time for *conversation and confidence*.

(= confidential conversation)

2)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의한 강조

형용사와 부사에는 정도의 비교를 나타내는 형태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3) 前掲書, p.601.

4) 이에 대해서 H.W.Flower(1931:245)는 二詞一意(hendiadys)라 칭하고 있다. 이는 동일 품사가 중첩되어 두 명사나 형용사를 *and*로 연결,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비교변화라 한다. 비교변화에는 세가지의 급(degree)이 있다. 형용사의 원급을 그대로 사용하는 원급(positive degree), 어떤 특성이 그보다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교급(comparative degree), 그리고 어떤 특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최상급(superlative degree)이 그것이다. 문장 가운데 특정어(구)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비교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 강조의 표현을 할 수 있다.

(1) 원급에 의한 강조

원급에 의해 강조하는 형식은 'as+형용사+as' 또는 'as+형용사+관사+명사+as'의 구문으로 나타난다. 특히 'as+형용사+as'의 경우 부정문일 때에는 앞 as가 so로 바뀌어 표현되는 수가 많다.

29. This pen is *as good as any* I have used.

30. He is *as great a poet as ever* lived.

31. Nothing is *so precious as* time.

32. She could not *so much as* write her own name.

(> She could not write her own name.)

또 as --- as를 이용한 강조표현은 직유(simile)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바 이를 강의적 직유(intensifying simile)라고 한다. 다음이 그 좋은 예이다.

33. *as miserable as a fish out of water*

as cool as a cucumber
as poor as a church mouse
as proud as a peacock
as slippery as an eel

이밖에 아래와 같은 특수한 용법도 있다.

34. a. He is as happy as (happy) *can be*.
b. The exam has come, and we are as busy as *possible*.

(2) 비교급에 의한 강조

비교급 앞에 붙어 강조하거나 정도를 나타내는 어구로는 even, far, much, still, rather, somewhat, a lot, a bit, a great / good deal 등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35a)에서처럼 비교급은 (very) much의 수식은 받을 수 있으나 very만의 수식은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타 비교급에 의한 강조구문으로 (36)의 예를 들 수 있다.



35. a. I am (very) *much* taller than you.
*He is *very taller* than she.
b. This new road is *far* better than the old one.
c. Your argument was *somewhat* more persuasive than his.
d. You can do *a lot* better.
36. a.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time.
b. She loved her husband *more than* anyone else.
c. Mt. Everest is *higher than* any other mountain in the world.

d. There never was a man *more* kind and just.

e. She is no *less* lovely *than* her sister.

(3) 최상급에 의한 강조

다음의 (37)은 최상급에 의하여 강조되고 있는 구문들이다. 최상급을 강조할 때는 'the+최상급' 앞에 *very*, *much*, *quite*, (by) *far* 등을 덧붙인다(38). 이때 *very*를 쓰면 어순에 차이가 생긴다. 또 *ever*는 최상급을 강조하는 *that*절에서 쓰이거나, *as --- as one can*, *as --- as possible* 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39).

37. a. Smith is the *best* student in the class.

b. They did it with the *greatest* difficulty imaginable.

c. He is the *greatest* novelist that ever lived.

38. a. That's *much* the best plan.

b. That's the *very* best plan.

c. She is *far* / *by far* the most intelligent student in the school.

39. a. She is the prettiest girl (that) I have *ever* met.

b. Travel as *much ever* as you can.

이와는 좀 다르지만 최상급에는 *very* 또는 *exceedingly*의 의미로 사용되는 절대최상급(*absolute superlative*)이 있다. 절대최상급은 부정관사를 동반할 수 있으며, 관사 없이 술어(또는 한정형용사)로 쓰인다는 점이 위의 일반 상대최상급과는 다르다. 또한 Curme(1931)에 의하면 *most*의 경

우 다음에서 보듯이 절대최상급으로 쓰인 것에는 뒤의 형용사에 강세가 오고(40 a, b), 상대최상급(비교를 하여 '가장 --- 하다'의 의미를 갖는) 과 '대부분의'의 뜻을 가진 것(41 a, b)은 most에 강세를 둔다고 한다.⁵⁾

40. a. He was a *most* brave man (=a very brave man).

b. This procedure is *most* dangerous.

41. a. It is the *most* lovely flower in the garden.

b. *Most* (=The great majority of) reputable writers have abandoned this claim.

3) 의문문의 강조

의문사인 who, what, when, where, why, how 다음에 ever가 왔을 때는 의문의 뜻에다가 화자의 놀람, 찬양, 노여움 등을 나타낸다. 이밖에 *in the world, on earth, under the sun* 등을 함께 쓰거나 *the devil, the hell, the deuce, the dickens, in the heaven's name, in God's name, the blazes* 등을 붙여서 의문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⁶⁾

42. a. Who *ever* thought of seeing you?

b. What *on earth* the better off should we be for that?

c. How *in the world* did you find it?

d. What *the hell* can I do?

e. What *the deuce* did you say anything to him for?

5) G. O. Curme(1931), *Syntax*, Boston: Heath, p. 507.


6) 강동욱(1990), 「 현대 영문법 」, 교학사, p. 632.

4) 부정 의미의 강조

부정문에 일정어구가 붙어 강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어구로는 *at all, in the least, by any means, in the slightest, on any account, in any way* 등을 들 수 있으며, 격식을 차리지 않은 문체에서는 *a bit, a thing* 등도 쓰인다.⁷⁾

43. a. The machine does not work *at all*.
b. She was not surprised at the news *in the least*.
c. You must not yield to any temptation *on any account*.
d. I don't like him *a bit*.
e. He didn't give me *a thing*.

이밖에 'no+명사(구)' 등은 *whatever*에 의해서 강조되기도 한다. 물론 'no+명사' 보다 'not a(single)+명사'가 부정의 뜻이 더 강하다.⁸⁾

- 44 a. You have no excuse.  *whatever*.
→ You have no excuse *whatever*.
b. *No word* came from his lips.
→ *Not a word* came from his lips.

5) 기타의 강조

(1) so, such 및 own에 의한 강조

7) 문 용(1992), 「 고급 영문법 해설 », 박영사, p. 434.
8) 上掲書, p. 435.

문장의 일부를 강조하는 so, such는 그 통사상 특성이 각각 감탄부사인 how와 감탄형용사인 what와 비슷하다.

즉 so는 (45)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사, 형용사, 동사를 수식하고, 'so+형용사+정관사+명사'나 'so+형용사+복수명사'의 구문을 만들지 못하며, 그다음에 many, few는 올 수 있지만 lots of, a lot of 등은 오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46)이 여기에 해당한다.

45. a. He learns French *so* eagerly.
b. His manners are *so* delightful.
c. Why did you hate meeting her *so*?
d. He told *so* funny a story.
46. a. *He told *so* funny the story.
b. He told *so* many stories.
c. *He told *so* funny stories.
d. *He told *so* lots of stories.



So나 too가 뒤에 that-절 보충어나 부정사 보충어 없이 very의 강조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법은 영국영어보다 미국영어의 약식 문체에 많으며 too가 이렇게 쓰이는 것은 의미상으로 부정적 문맥에만이다.

47. a. The party was *so* delightful!
b. He isn't *too* bright.
c. *This food is *too* good. [= This food is very good.]

Such는 what처럼 `부정관사+명사'를 수식한다. 그리고 복수명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 so와는 달리 many를 수반할 수 없다. 9)

- 48 a. He is *such* a genius.
b. *John is *such* the stupid man.
c. He told *such* funny stories.
d. *He told *such* many stories.

명사를 수식하는 소유형용사 또는 소유격 명사는 own에 의해 강조되고, 그 own에 very를 보태면 한층 더 강조된다. 일반적으로 소유격은 동작주(Holbein's portrait of Henry VIII), 소유자(my house), 사건(John's death) 등을 표현한다면 강조의 own을 가지는 소유격은 주로 소유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작주를 나타내는 소유격에 own을 가해서 Holbein's own portrait of Henry VIII라고 하면, 역사적 이름이나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은 Holbein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림의 소유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49. a. This is my *own* house.
b. The orange has a scent all its *own*.
c. He cooks his *own* meals. [= He cooks meals *himself*.]

(2) 형용사에 의한 강조

형용사에는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과 주격보어나 목적격보

9) 문 용(1988), 「영문법(II)」,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p.127.

어로서 명사를 간접적으로 수식하는 서술적 용법이 있다. 이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형용사가 강의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50. a. Jane is a *mere* child.
b. *The child is *mere*.
51. a. That man is an utter fool.
b. *The fool is *utter*.

위의 *mere*나 *utter*는 각각 명사 *child*와 *fool*이 나타내는 의미의 일면을 강조해 주고 있다. 이러한 강의어는 서술적 용법을 갖지 않는다.

다음의 형용사도 강의어로서 역할한다.

52. a *close* friend, a *perfect* idiot,
his *entire* salary, a *real* hero,
a *sheer* fabrication, a *big* baby(=a very babish man)

위 a *real* hero(진짜 영웅)의 *real*을 *The hero is *real*과 같이 서술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은 *real*이 강의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n *artificial* flower와 대립되는 의미의 a *real* flower의 *real*은 강의어가 아니기 때문에 The flower is *real*과 같은 구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어순도치에 의한 강조

어순도치(inversion)란 문장 안에 있는 구성소를 보통의 경우와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어+동사'의 어순을 취하지 않고 '동사+주어'의 형식을 취하거나 목적어, 보어, 부사류가 주어 앞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강조를 위한 도치, 문법상의 도치, 문장의 균형이나 안정을 위한 도치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보통의 어순을 도치하여 강조를 나타내는, 강조를 위한 도치의 가장 흔한 방법은 목적어, 보어, 부사류를 문두에 두게 하는데 있다. 또한 부정어를 문의 앞자리로 위치 시킴으로써 강조하는 방법도 있다.

1) 목적어를 문두에 두는 강조

구어 영어에서는 목적어를 문두에 위치 시킴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때 어순은 '목적어+주어+동사'의 어순이 된다.¹⁰⁾

53. a. *Some* Cupid kills with arrows, some with traps.
 b. *This promise* he broke in less than a week.
 c. *Dates* I could never remember.
 d. *That book* I read when I was sixteen.

그러나 목적어가 부정어이거나 이에 준하는 어군,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군, 혹은 many, much 등의 강의를 포함하는 어구등이 선행할 경우에는 도치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54 c)처럼 강의어 many없이 *rabbit had he snared*라고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¹¹⁾

10) O. Jespersen(1956),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7 Syntax, London: Allen and Unwin, p. 68.

11) R. W. Zandvoort(1975),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7th Edition, London: Longman, p. 239.

54. a. *Not a single mistake* did I find in your composition.
 b. *Only one little gleam of hope* did I get.
 c. *Many a rabbit* had he snared without the gamekeeper noticing it.
 cf. *A rabbit had he snared without the gamekeeper noticing it.

문장의 앞머리에 *웁감*으로써 그 일부를 강조하려는 구문으로 다음 (a)와 같은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즉 (b)에서 주어는 *to teach her*이지만 (a)에서는 *to teach*의 목적어인 *her*가 주어가 되어 *she*가 강조되고 있다.

55. a. *She's* a pleasure to teach.
 = b. It's a pleasure to teach *her*.

2) 보어를 문두에 두는 강조

보어를 중요시할 때 이것을 문두에 내놓는데, 현대 영어에 있어서는 도치가 비교적 드물지만 *such*나 *this* 등이 보어이거나 보어를 수식할 때, 그리고 *so*, *thus*가 보어 앞에 나올 때는 보어가 주어와 술어에 선행하며 도치되는 경우에는 *be* 동사가 많다. 대개 주어가 명사일 때는 도치되고, 대명사일 경우에는 어순이 그대로이다. 또 강조하기 위하여 목적보어가 문두에 오면 도치되기도 한다(57).

56. a. A *bargain* it was at that price.

- b. *Such miserable creatures of circumstances* are we all.
 - c.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 d.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way, that leads to destruction.
 - e. *Unlucky* he is who does not like his work.
57. a. *So selfish* does our life make us.
- b. *Enclosed* you will find a letter.

3) 부사류를 문두에 두는 강조

부사류를 문두에 내세워서 강조하는 것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 수식 부사(sentence modifying adverb)와는 유형이 다르다. 즉 문두에 나오는 점은 동일하지만 문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를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 문 앞에 내세워 문 중의 일부분만을 수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때, 장소, 순서를 나타내는 부사가 여기에 해당되며 동사는 *be, go, come*인 경우에 특히 많다. 이때 도치는 임의적이다.



58. a. *Then* is doomsday near.
- b. *In my heart* was a desire to live more dangerously.
- c. *First* comes the modal, then the have+part., then the be+ing.

Out, down, off, in, up, away, over 등이 문두에 올 때, 강세가 없는 짧은 대명사인 경우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60 a,b). 또한 문두에 온 부사에 강세가 있더라도 뒤의 주어에 둔 강세보다는 약하다(59 a,b).¹²⁾

그리고 이러한 부사를 문두에 두어 강한(lively) 명령을 나타낼 수 있고 (61), 또 (62)와 같이 동사없이 '부사+with+(대)명사'의 구문으로 명령, 권유 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13)

59. a. *Out* rushed the man and his wife.
 b. *Down* came the rain in torrents.
60. a. *Down* he came. (=He came down.)
 b. *Off* they went. (=They went off.)
61. *In* you go! (=Go in, please.)
62. a. *Away* with it! (=Take it away!)
 b. *Down* with the tyrant! (=Let us suppress the tyrant.)

부사류의 전치에서는 문두에 오는 부사류에 초점이 맞추어 지며, 담화 중의 강조나 대조를 나타내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때, 양태, 이유, 목적, 조건, 빈도, 정도, 방향, 위치의 부사류 등이 문두에 올 수 있다.



63. *In the morning* he jogs.
64. *Because I was annoyed*, I made some unfortunate remarks.
65. *In order to see Mr. Brown*, we went to Boston.
66. a. *In the garden* an elm tree stands / *is.
 b. *In the garden* stands / is an elm tree.

12) G. O. Curme(1931), *op. cit.*, p. 349.

13) A. S. Hornby(1975),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nd Edition, p. 423.

위 (66 a)의 문미 is가 비문법적인 것은 be동사는 충분한 사서적 의미를 지닌 동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b)는 도치된 주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청자나 독자의 예상에 반대되는 표현을 하는데 쓰인다. 이때에는 반드시 전제가 존재한다.

4) 부정어를 문두에 두는 강조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seldom, neither, nor, never, scarcely, hardly, no, little, not only, rarely, no sooner* 등이 문두에 올 때 주어와 동사는 도치되며 강조된다. 이 경우 다른 조동사나 be 동사를 포함하지 않는 문에서는 'do[does, did]+ S + V'의 어순이 된다.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앞에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only*도 의미상으로는 부정어에 가까우므로 첫머리에 오면 도치된다.

67. a. *Never before* had they realized that any time had elapsed.
b. *Little* did I dream that I should never see him again.
c. *Scarcely* had he gone out when it began to rain.
d. *No sooner* had she said it than she realized her mistake.
e. *Only on one point* do I agree with you.

그러나 부정어가 단어부정(word negation)인 경우에는 부정어가 문두에 와도 도치를 하지 않는다. 가령 *Hardly a word was spoken*에서는 *hardly*가 문장 전체가 아닌 단어 a word만을 수식하기 때문에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¹⁴⁾

14) R. W. Zandvoort(1975), *op. cit.*, p. 238.

68. a. Not many hours earlier *he had* spoken with someone else.
b. Not long ago *there was* rain falling.

3. 수사외문문에 의한 강조

수사외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답을 기대하여 물어보는 의문문이 아니라, 반어적으로 쓰여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거나,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구태여 의문을 던져 다시 물어 보느냐'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일반 의문문과 수사외문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단지 겉으로 보아서의 일반 의문문이나 수사외문문이 동일하게 보이므로, 뜻을 고려하여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의문문은 화자에게 신정보(new information)가 될 답을 청자에게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그러나 화자가 그 답을 알고 있으며 상대방에게서 답을 기대하는 것도 아닌 의문문이 있다. 이러한 의문문 가운데 특히 평서문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뜻을 강조하는데 쓰이는 의문문이 수사외문문(rhetorical question)이다.

구조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강한 주장(strong assertion)의 힘을 지니며 일반적으로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질문을 일컫는 수사외문문은 Yes-No question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Wh-question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1) 수사 Yes-No question

수사 Yes-No question은 (69 a,b)와 같은 긍정형태와 (70 a,b)처럼 부

정 형태로 나타난다. 긍정 형태는 강한 부정적 주장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며, 부정의 형태는 강한 긍정적 주장의 효과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수사 질문의 억양은 Yes-No 질문에 정상적인 상승조(rising intonation)를 취한다. 15)

69. a. *Is that a reason for despair?*

(=Surely that is not a reason for despair.)

b. *Can anyone doubt the wisdom of this action?*

(=Surely no one can doubt the wisdom of this action.)

70. a. *Didn't I tell you he would forget?*

(=I told you that he would forget.)

b. *Haven't you got anything better to do?*

(=Surely you have something better to do.)

2) 수사 Wh-question

긍정형태를 취할 경우 그 Wh-요소가 부정적 요소로 대체된 진술문의 의미와 같으며(71 a,b), 이보다는 덜 흔하다고 할 수 있는 부정적 Wh-수사 의문문은 그 Wh-요소가 긍정적 요소로 대체된 진술문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72 a,b). 또 이들의 억양은 일반적으로 상승-하강조(rise-fall tone)를 취한다. 그리고 수사의문문은 (73)의 예문과 같이 앞선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도 사용된다. 16)

15) R. Quirk, et al.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Group Ltd., pp. 825-26.

16) *Ibid.*, p. 826.

71. a.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It makes no difference.)
- b. *How* can I help it?
(=There is no reason why I can help it.)
72. a. *Who* doesn't know?
(=Everybody knows.)
- b. *How* couldn't you remember?
(=You certainly should have remembered.)
73. A: Do you want to eat?
B: *Do I look hungry?*



Ⅲ. 분열문을 통한 강조

본 장에서는 영어의 강조구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분열문(cleft sentence)의 강조용법과 의사분열문(pseudo-cleft sentence)의 용법을 차례대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분열문(Cleft sentence)의 정의

분열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74)와 (75)를 보자. 이 두 문장은 서로 같은 내용을 표시하는 문장들로서, 각 문장들은 *music*을 그 초점으로 취하고 있다. 즉 다양하게 연관성을 갖고 있으나 그 표현의 방식이 각기 다르다. 전통적으로는 (74)의 문장을 (75a)와 같은 문장과 (75b)의 문장으로 표현해 왔다.

74. John likes music a lot.

75. a. *It's music that* John likes a lot. (cleft sentence)

b. *What* John likes a lot *is* music. (pseudo-cleft sentence)

여기서 (75a)가 분열문으로 Jespersen(1937, 1956)에 따르면 문장 내의 어떤 특정 요소를 택하여 그것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it is --- that< who, which>*에 의해 분열된 문장을 말한다.¹⁷⁾ 그것은 의사분열문으로 분류되는 (75 b)와는 약간 다르다. Quirk and

17) O. Jespersen(1937), *Analytic Syntax*, London: Allen and Unwin, p.73.
———(1956), *MEG* vol.7, pp.147-48.

Greenbaum(1973)은 아래와 같이 분열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18)

"A special construction which gives both thematic and focal prominence to a particular element of the clause is the cleft sentence, so called because it divides a single clause into two separate sections, each with its own verbs.

Most cleft sentence statements begin with the empty(or expletive) pronoun it followed by the verb BE, which in turn is followed by the element on which the focus falls."

즉 절의 한 특정 요소를 초점으로서 앞으로 옮겨 두드러지게 하는 특수한 구문인데 한 절을 두 개로 나누어 각각 자체의 동사를 갖는다. 평서문 형식으로 된 분열문은 대개 대명사 *it*에 동사 *be*가 뒤따르는 형으로 시작되어 그뒤에 초점이 되는 요소가 나타난다. 그런데 분열문은 음조로서 대조적 강조를 나타낼 수 없는 문자 언어에 있어 특히 유용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Jespersen(1937,1956)이 말한 것처럼 분열문은 어떤 특정적 요소에 주관적인 초점적 우월성을 부여하기 위한 짜임새를 설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의 비분열문 (76)는 (77 a-d)와 같이 각기 다른 초점을 취하는 분열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

18) R.Quirk and S.Greenbaum(1973), *op.cit.*, p.414.

76. John wore his best suit to the dance last night.

77. a. 초점으로서의 주어

It was *John* that <who> wore his best suit to the dance last night.

b. 초점으로서의 목적어

It was *his best suit* that John wore to the dance last night.

c. 초점으로서의 부사어

It was *last night* that John wore his best suit to the dance.

d. 초점으로서의 부사어

It was *to the dance* that John wore his best suit last night (formal).

It was *the dance* that John wore his best suit to last night (informal).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사분열문은 Quirk and Greenbaum(1973)에 의하면 Wh-관계대명사절이 주어나 보어로 나타나는 S V C 구조를 갖는 것이다.¹⁹⁾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78)의 비분열문을 (79 a)의 분열문과 (79 b,c)의 의사분열문으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²⁰⁾

78. You need a good rest most.

19) *Ibid.*, p.416.

20) 본 논문에서는 (79c)와 같은 Wh-관계사절이 주어로 나타나고 S V C 형의 구조에서 C의 위치에 초점요소가 오는 의사분열문에 관해서 다루기로 한다.

79. a. *It's a good rest that you need most.* (분열문)
 b. *A good rest is what you need most.* (의사분열문)
 c. *What you need most is a good rest.* (의사분열문)

2. 분열문의 초점

한 문장 안에서 다른 구성소(sequence)에 의해서 치환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구성소를 그 문장의 초점(focus)이라고 하는데, 그 문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강조되며 우세하게 부각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점이 특별히 나타나는 초점구문이 분열문과 의사분열문이다. *It is ... that* 구문에서 *It is* 다음에 오는 요소, 즉 강조를 받는 요소가 곧 초점이다.

분열문은 음조가 나타나지 않는 문어체 영어에서 정보의 초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때 강조되는 요소는 신정보(new information)로서 대조적 초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외 절의 나머지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old information)로 해석되며, 문장의 초점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다른 항목과의 대립을 추측할 수 있다.

1) 분열문의 초점 위치에 올 수 있는 요소

앞의 (77)에서 이미 살펴 보았듯이 다음 (80)의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모두 분열문의 초점이 될 수 있다.

80 John wore his best suit to the dance last night.

이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의 구실을 하는 명사(구)와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는 분열문에서 초점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전치사구에 의해 실현된 부접사(81)나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구(82), '시간, 이유' 등을 표시하는 부사절(83, 84)도 초점이 된다.

81. It was *in September* that I first noticed it.

82. It is *because of you* that I came back.

83. It's *only when I don't want them* that they show up.

84. It was *because he was ill* that we decided to return.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분열문의 초점은 명사구, 부사구 혹은 부사절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5)과 같이 Quirk, et al. (1985)은 형용사구가 초점이 되는 예도 들고 있다.²¹⁾ 기타 대조를 나타내는 구성소가 분열문에서 초점이 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86). 이때 대조를 이루는 구성소는 중요한 정보로서 제시되기 때문에 강세를 받는 대신에, that 절의 내용은 앞 문맥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생략할 수도 있다.

85. It's *dark green* that we've painted the kitchen.

86. It is *not in Budapest* that her presence is needed but *in Moscow*.

2) 분열문의 초점 위치에 올 수 없는 요소

한편 분열문에서 초점이 될 수 없는 요소로는 주격보어(87), 술어동사

21) R. Quirk, et al. (1985), *op. cit.*, p.1385.

(88), 문수식부사와 양태부사(89 a,b)가 있으며, 이른바 4형식 문장의 간접목적어도 초점이 되는 것은 어색하다(90). 이는 *He gave me the book* 에서 어순상 *me* 보다는 *the book* 이 신정보(new information)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즉 *the book* 이 *me* 보다 정보가치가 높으므로 *the book* 을 제치고 *me* 가 초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²²⁾ 그러나 *He gave the book to me*이라는 전제하에서는 *It was me that he gave the book to* 혹은 *It was to me that he gave the book*은 가능하다.

87. Bill is quite happy.

→ *It is quite happy that Bill is.

88. I love you.

→ *It is love that I you.

89. a. Obviously, she loves him.

→ *It is obviously that she loves him.

b. She did it carefully.

→ *It was carefully that she did it.

90. He gave me the book.

→ ?It was me that he gave the book.

3. 의사분열문(Pseudo-cleft sentence)

의사분열문은 III.1의 (75 b)와 (79 b,c)에서 살펴보았듯이 What --- is<was> --- 의 문형을 이용한 강조구문을 가리킨다. What 다음에 `전제

22) 문 용(1992), 前掲書, p. 420.

(presupposition)'가 되는 부분이 오고, is 다음에는 강조를 받는 '초점 (focus)'이 오는데, 이 절에서는 의사분열문의 구조와 그 초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의사분열문의 구조

순수한 분열문처럼 의사분열문도 의사전달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부분과 새로운 정보부분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의사분열문은 Wh-관계사가 이끄는 명사절을 주어 또는 보어로서 포함하는 S V C 형의 문장이다.

Nakada(1973)에 의하면 의사분열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반향의문 (echo question)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자문과 그 응답문으로 구체화 된다는 가정을 한다.²³⁾

91. A: What did John count? \

B: What did John count? / He counted the pigeons.

92. What John counted was the pigeons. LIBRARY

(91 A)의 억양은 하강조로 끝나고 있으나, (91 B)는 상승조이다. 여기서 Nakada(1973)의 주장은 (91 B)의 담화구조는 반드시 (92)의 의사분열문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바꿔말하면 의사분열문은 Wh-의문문과 그에 대한 응답문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91 B)의 Wh-의문문 자체로는 어떤 의미적 여백이 있으며, 그 뒤의 응답문 내의 어떤 요소가 그 여백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91 B)의 의문문에 대한 응답

23) S.Nakada(1973), "Pseudo-Clefts: What Are They?" *Papers from the 9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428-41.

으로서의 전제적인 비분열문 *He counted the pigeons* 에서 초점 요소로 채워진 문장이 의사분열문 (92)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앞의 비분열문 (78)을 다시 살펴보면 이 문장을 전제로 다음의 (93 a, b)와 같은 *Wh*-의문문과 그 응답문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79 c)의 의사분열문과의 비교도 가능하다.

78. You need a good rest most.

93. a. What is it that you need most?

b. It is a good rest.

79. c. *What* you need most *is* a good rest.

2) 의사분열문의 초점

분열문에서는 주로 명사구와 부사구가 초점이 되는데 반하여, 의사분열문에서는 명사구(94 a, b) 뿐만 아니라 동사구(95 a, b), 그리고 명사절(96 a, b)도 초점이 될 수 있다.²⁴⁾

94. a. What they'll send is *an investigation committee*.

b. What interests Ende most, I would guess, is *the matter of time*.

95. a. What she went out for was *to get coffee*.

b. What I have to do now is *sit back and pick and choose a little more*.

24) 이상수(1987), "영어 강조표현의 기능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pp. 28-29.

96. a. What few people know is *that prince Michael has been of great help to the young princess Diana.*

b. What is pleasant to note is *that neither he nor any of his fellow directors have service contracts.*

이 경우 대동사 do를 사용함으로써 자유롭게 유표적 초점(marked focus)이 서술부와 겹치도록 하기 때문에 (97)에서 보여주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분열문보다 덜 제한적이다. 이들 문장의 보충어들은 대개 to가 있거나 혹은 없는 부정사 형태이지만, (98)과 같이 Wh-절의 동사가 진행상(progressive aspect)일 경우 보충어도 be going to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ing 형을 취한다. 25)

97. a. What he's done is (to) *spoil* the whole thing.

b. What John did to his suit was (to) *ruin* it.

c. What I'm going to do to him is (to) *teach* him a lesson.

98. What I'm doing is *teaching* him a lesson.

한편 의사분열문의 초점이 될 수 있는 동사(구)는 동적동사(dynamic verbs)에 한하며, 상태동사(stative verbs)는 의사분열문을 만들지 못한다(99). 26) 기타 의사분열문을 대신할 수 있는 명사구를 포함한 구문을 예로 들면 (100a-e) 등이 가능하다.

99. What she did was (to) *learn* Spanish.

25) R. Quirk, *et al.* (1985), *op. cit.*, p. 1388.

26) *Ibid.*, p. 178.

*What she did was (to) know Spanish.

100. a. *The person who spoke to you must have been the manager.*
b. *Somebody I particularly like is John.*
c. *The way we make a cake is by following mother's recipe.*
d. *The place (where) the accident happened is here.*
e. *The time when the countryside is most beautiful is (in) autumn.*

4. 분열문 속의 변이형

지금까지 분열문의 정의, 초점, 그리고 의사분열문의 구조와 초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부터는 그러한 분열문의 구조에서 통사론적으로 다소 변이된 형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분열문의 주어 It 대신에 that, those, this 등이 간혹 쓰이며, 인칭대명사 he, she, they 가 사용되기도 한다.

101. a. *That is the love that makes the world a miracle.*
b. *Those are my feet that you are stepping on.*
c. *Is this a dagger which I see before me?*
d. *They are royal troops the French sent against you.*
e. *Who was she that he danced with?*

둘째, 도입부의 일반적인 형태는 It is, It's 혹은 It was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간혹 It might be와 같은 BE의 다른 형태가 쓰이기도 한다.

102. a. *It must have been his brother that you saw.*
 b. *It might be his father that you're thinking of.*
 cf. *It may be that he never will be famous.*

셋째, 절대적으로 제한적인 절의 성격상 It Be 다음에 자연히 that을 선호하지만 사람이나 사물이 초점이 되는 분열문에서는 who 나 which 가 쓰이기도 한다(103a, b).²⁷⁾ 음성적인 면을 고려하여 그럴 때도 있는데 가령 지시사 that 뒤에서 which 를 쓰거나 혹은 단어가 서로 이웃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러하다(104 a, b).²⁸⁾

103. a. *It was my mother who / that threw an egg at the man.*
 b. *It was the very fact which / that convinced me.*
 104. a. *I use the word not in its present depreciatory sense, but in that which was held in the nineteenth century.*
 b. *It is that particular point which gives me trouble.*



넷째, Quirk, et al. (1985)에 의하면 who 대신 드물게 'whose+명사'가 쓰일 때도 있고(105), whom이나 which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106)와 같이 그 앞에 전치사가 선행할 경우에는 사실상 분열문이 아니며 후치수식 관계절을 포함한 문장일 뿐이라고 한다. 또한 (107a, b)에서 보듯이 특징적인 억양도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²⁹⁾

27) O. Jespersen(1956), *MEG* Part 3, 2nd Edition, p.90.

28) 이연식(1979), "분열문에 관하여(On Cleft Sentences)," 「영어교육」, 제17호, 한국영어교육학회.

29) R. Quirk, et al. (1985), *op. cit.*, p.1387.

105. It's Uncle Bill *whose address* I lost.
106. It was the dog *to which* I gave the water.
107. a. It was *the dog* that I gave the water to (cleft 문장이다).
 b. It was the dog that I gave *the water* to (S V C 문장이다).

위 (107 a)는 It be --- that을 없앤 단문 I gave the water to the dog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분열문이지만, (b)는 S V C 문장 즉 관계대명사 구문으로서 단문으로 환원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떤 문장이 분열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가 되는 것은 It be --- that의 생략 가능 여부이다.

일상체(informal style)에서는 (108)에서 처럼 연결사가 종종 생략되기도 하고, (109)와 같이 선행하는 it 이 언외의 뜻(subaudition)을 위하여 생략되는 수도 있다.³⁰⁾ 한편 분열문의 구조는 의문문, 감탄문 및 종속절에서도 나타나며(110 a-c), 기타 (111)과 같이 관용적인 표현에서도 쓰인다. 더우기 (112)처럼 분열문과 의사분열문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108. a. It was John I gave the book to, not Harry.
 b. How much was it he stole?
109. a. Who is that just rang?
 b. What is that you say?
110. a. *Was it* for this *that* we suffered and toiled?
 b. *What a* glorious bonfire it was you made!

30) H. Sweet(1924), *A New English Gramma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2124.

c. He told me that it was *because he was ill* that they decided to return.

111. a. *It must be she* playing.

b. *Was that you* knocking?

112. *What it was* you asked for was a ticket to Brighton. Did you mean Birmingham?

이상에서 분열문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왜 화자가 이러한 분열문을 담화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분열문의 용도를 간략히 지적해보고자 한다.

우선 화자가 분명한 명시적인 문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바램 때문이다. 즉 명시적인 문장의 사용은 화자로 하여금 전달 내용과 더불어 부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서술문 보다는 분열문을 선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분열문상의 초점이 contrastiveness(~가 ~하는 것은 다른아닌 ~때문이다), emphasis(정말 ~야말로 ~이다), exhaustiveness(~인 것은 바로 ~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한가지는 분열문이 보통문장보다 말하여진 내용에 청자가 관여하는 정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보통의 분열문 속에 Wh-word가 들어있음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자가 긴장감을 조성하고 싶을 때, 즉 그가 말하는 것이 앞으로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원할 경우 등에 보통문장보다 분열문을 사용한다.

IV. 기타의 강조구문

영어에는 앞에서 고찰한 강조구문 이외에 재귀대명사를 사용하거나 조동사를 이용하여 강조를 나타내기도 하며, 반복어법과 복수형태를 통해서도 강조구문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이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재귀대명사에 의한 강조

발화의 번잡성과 단조로움을 없애고 문장에 변화를 주기 위한 언어 현상 가운데 하나인 재귀대명사(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itself, ourselves, yourselves, themselves)가 대체로 재귀적인 의미를 갖는 것(113 a)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강조의 의미를 아울러 갖기도 한다(b).

113. a. He saw *himself* in the broken mirror.
b. He *himself* saw the broken mirror.

재귀대명사가 강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그 발전 과정을 통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원래 고대영어에서는 재귀대명사가 없었고 인칭대명사를 재귀적 의미로 사용했다.³¹⁾

31) S. Moore, et al. (1965), *The Elements of Old English*, Michigan: The George Wahr Publishing Co., p.154.

114. a. He ofsticode hine.
 b. He killed *him*. (=someone else)
 c. He killed *himself*.
115. He ofsticode hine *selfne*.

따라서 위 (a)는 (b,c)의 두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을 뜻하는지 문맥에 의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재귀적 대명사가 재귀대명사를 대신하는 현상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중의성을 피하고자 (115)과 같이 재귀목적어에는 인칭대명사에 *self*라는 강의어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습관이 중세영어에 전수되어 그 말기에는 *self*에 의한 복합형이 확립되었다. *Self*는 원래 *the very, the same*의 뜻을 지녔던 형용사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재귀대명사가 강의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강의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재귀대명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명사, 대명사와 동격으로 쓰여 강조를 나타내며, 재귀대명사에 강세가 오게 된다(116). 이때 재귀대명사는 단지 뜻을 강하게 할 뿐이므로 생략하여도 의미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귀대명사의 위치는 대개 문장의 주어를 강조하여 그 뒤에 위치하는데 목적어가 있을 경우 목적어 다음에 놓일 수도 있다(117 a,b). 자동사 다음에도 가능하지만 그 뒤에 전치사+명사가 따를 때에는 명사 다음에 위치한다(118). 그렇지만 다른 명사를 강조시에는 바로 뒤에 온다(119 a,b).³²⁾

116. The king *himself* gave her the medal.

32) A.J.Thompson, et al.(1980), *A Practical English Gramma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p.35-36.

117. a. Ann *herself* opened the door.
 b. Ann opened the door *herself*.
118. Tom went to London *himself*.
 or Tom *himself* went to London.
119. a. I spoke to the president *himself*.
 b. She liked the diamond *itself* but not the setting.

위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강의적 용법의 재귀대명사 위치는 가동적 (movable)이다. 그런데 Jespersen(1956)에 의하면 위(117a)의 위치는 다소 허식적(preentious)이고 문어적이며(117b)는 일단 완결한 진술 뒤의 추가표현(afterthought)으로 구어에 많이 쓰인다는 주장이다.³³⁾

다음으로 인칭대명사를 강조하는 재귀대명사가 같은 뜻으로 문미의 종속절에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인칭대명사+oneself'에서 앞부분의 인칭대명사가 탈락하여 생기게 된 (120)의 용법이다. Curme(1952)은 이러한 탈락이 11세기 이후에나 발생된 것이라 한다.³⁴⁾

120. a. My boy played with several others who were of about the same age *himself*. (=he himself was)
 b. Did you ever know a woman pardon another for being handsomer than *herself*? (=she herself was)
121. a. The owner *himself* built the house.
 b. The house *itself* has little historical value.
122. a. The owner built the house *himself*.

33) O. Jespersen(1956), *MEG Part 7 Syntax*, p.171.

34) G. O. Curme(1952), *English Grammar*, New York: Barnes and Noble, p.226.

b. ?The house has little historical value *itself*.

위 (121,2)에서 보다시피 '명사+재귀대명사'형은 유생주어와 무생주어 양 쪽에 사용되는 본래의 강조용법이지만 문미의 재귀대명사는 유생주어일 때는 가능하나 무생주어에 쓰이면 어색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유생주어가 문미의 재귀대명사에 의해 강조될 경우 부사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122a)의 *himself*는 *by himself*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

한편 동사와 전치사의 목적어로서의 *oneself*에도 드물긴 하지만 단순용법이 있다. 단순용법으로 끝날 곳에 강의의 목적으로 복합형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123 a,b). 또한 *and* 등으로 연결되는 복합요소의 하나로서 쓰일 때도 있으며(124 a,b), 중문(compound sentence)과 복문(complex sentence)의 뒷부분에서 앞부분에 표시된 주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가 있으나 보통 구어적이다(125). 기타 재귀대명사를 이용한 강조구문에서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oneself*가 *even, the very, also, too*의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126)의 예를 들 수 있다.

123. a. I think it's awful comparing *yourself* to Jesus, dad.

b. Even day-dreaming was more creative than this; it demanded something of *oneself* and it fed the inner life.

124. a. My sister and *myself* were the only ones not down with the flu.

b. There's only *myself* and Louisa here.

125. Queen Anne owned racehorses and *herself* made the fortunes of Ascot.

126. a. No man but has some fault. Confucius *himself*(=even) had his fault.
 b. The old gentleman is *hospitality itself*.(=very hospitable)
 c. I am fond of reading *myself*.(=also, too)

문법적 초점과 강조표현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유사하며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은 초점구문과 강조어구가 의미상의 특질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저녁 식사를 만든 사람이 John이지 다른 사람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 공통된다.

127. a. It was *John* who cooked the dinner. (초점구문)
 b. John *himself* cooked the dinner. (강조어)

2. 조동사에 의한 강조

조동사를 사용하여 주장이나 진술의 사실성, 정도 등을 강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조동사의 경우 강세를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타의 동사일 때 do를 이용하는 것이다. 조동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강조하는 경우 대표적인 강조의 조동사는 do이며, 기타 be, have, must, may, will, shall, could, should 등이 강조 표현에 쓰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강조의 조동사 do와 기타 강조조동사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다.

1) Do를 사용한 강조

영어를 읽고 말하는 가운데 do가 들어간 문장을 많이 접하게 된다. Do는 조동사(auxiliary verb)로도 사용되고 본동사(main verb)로도 쓰이는 점에서 특이한 동사라 할 수 있다. Quirk(1973)는 동사를 크게 어휘동사(lexical verb)와 조동사(auxiliary verb)로 나누고 do를, 서법조동사(modal auxiliary)에 속하는 can, may, will, must 등과 달리 have, be와 함께 일차조동사(primary auxiliary)라는 범주에 넣고 있다.³⁵⁾

조동사에 강세가 주어지면 문장 전체가 더욱 강조를 받게 된다. 그런데 조동사나 계사 Be가 문장에 사용되지 않을 때는 Do를 넣어 그것에 강세를 가한다. 강조구문에서 쓰이는 Do는 우선 긍정문이나 명령문, 의문문에서 동사원형 앞에 놓여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때 do는 강세를 두어서 발음하며, 이탤릭체로 표기되기도 한다.

128. a. I *do* wish I hadn't drunk quite so much!
 b. She *does* like dogs.
 c. He *did* come but soon went back.
129. A: You *didn't* see him.
 B: I *did* see him.

특히 위 (128)에서는 화자의 심적 태도가 강하게 드러나 있는 반면에 (129)에서는 A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대하여 '그렇지 않아, 정말이지 나는 그를 만났어'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I *did* see him은 *Certainly / Really I saw him*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정이나 의심을 나타내는 진술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부정이나 의심

35) R. Quirk and S. Greenbaum(1973), *op. cit.*, p. 26.

이 옳지 않음과 이 do가 사용된 문장의 내용이 사실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명령문에 do가 부가되면 상대방이 화자의 명령을 따르거나 설득하도록 조르는 뜻이 강조된다(130 a, b). 이처럼 화자의 의사를 강하게 나타내는 명령문을 때로 강조명령문(emphatic imperative sentence)이라 부르기도 한다.³⁶⁾ 읽을 때는 do에 강세를 두며, 해석하는 경우 '꼭, 정말로, 제발' 등의 말을 덧붙여 준다. 또한 다음 (131 a)는 그저 '들어와'라는 뜻이지만 (b)는 상대방이 좀처럼 들어오려하지 않을 때 사용되기도 하고, 상대방을 반기는 뜻을 강조하기도 한다.

130. a. *Do* have some more.
b. *Do* let's leave now.

131. a. Come in.
b. *Do* come in.

한편 현재와 과거, 규칙적 행위와 예외적 행위의 대립을 보여주는 (132)의 경우도 있으며, 조건절에 쓰여 가정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133). 또 강조의 do가 be 앞에서 쓰일 때에는 명령이라기 보다는 긴급한 요청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134).³⁷⁾

132. I don't take much exercise now, but I *did* play baseball quite a bit when I was younger.

133. What difference would it make if we *did* get there late.

36) 조성식(1990), 「영문법 연구II」, 신아사, p. 239.

37) R. W. Zandvoort(1975), *op. cit.*, p. 80.

134. *Do be quiet.*

그리고 강조의 *do*가 문장 전체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할 때 강의의 부사인 *certainly*나 *really*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또 *never, rarely, seldom, often, always* 같은 부정어나 빈도의 부사가 *do* 앞에 오기도 한다.

135. I certainly *do* hope they win the game.

136. (To make a long story short) The guest we were waiting for never *did* arrive.

그러나 강조의 *do*에 관해서는 Myers(1966)의 아래와 같은 견해도 있을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As late as Shakespeare's time *do go* is used simply as a variant of *go*, with no suggestion of emphasis In expressions like 'I *did* finish it' it is not the word *did* but the heavy stress that makes the emphasis, and the result is no more emphatic than 'I *have finished* it' or even 'I *finished* it' though the implications may be slightly different."³⁸⁾

2) 기타의 조동사에 의한 강조

조동사에 의한 강조는 전 문장에 걸쳐 감정적 효과를 주거나 일종의 대

38) L.M.Myers(1966), *The Roots of Modern English*, Boston: Little Brown and Co., pp.229-30.

립을 보여주기도 하는데(137), do가 없는 문장에서 강조를 할 때에는 조동사에 강세를 두어 발음한다(138).³⁹⁾

137. I couldn't swim last year, but I really *can* now.

138. a. But I *háve* told you everything already.

b. You *múst* go, there is no help for it.

c. Death *may* come any day, but it *wíll* come some day.

d. Well, I say, you *áre* a swimmer.

e. He had a peculiar taste, Mr. Gordon *hád*.

논리적 필요성에 보통 *must*가 사용되지만 *have (got) to*가 더욱 강의적 표현을 지닐 수 있으며, 주로 미국 영어에서 발견된다.⁴⁰⁾

139. There *has (got) to* be some mistake.

한편 아래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조동사에 강세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일부 부사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와는 차이를 보여준다.

140. *cf.* You have *certainly* grown. (정상어순인 구문)

You *certainly háve* grown! (강조구문)⁴¹⁾

39) O. Jespersen(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Allen and Unwin, p. 296.

40) R. Quirk, *et al.* (1985), *op. cit.*, p. 226.

41) M. Swan(1992), *Practical English Usa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 201.

‘나는 --- 할 작정이다, 예정이다’라는 표현에 ‘I’m going to, I plan to, I will’등이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비상한 결심으로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즉 강한 의지나 결의로 ‘--- 할 테다, 기어코 --- 할 작정이다’의 뜻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에 한해 I will, I won’t를 사용한다(141 a,b). 기타 논리적 개연성을 나타내는 서법조동사와 관련한 예측이나 추측의 정도를 (142)처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평서문에서 shall은 2,3인칭 주어와 함께 쓰여 ‘---해주겠다, 해 줄 테다’처럼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143).

141. a. I *will* have him drive you home.

b. I *won't* stand any nonsense.

142. a. It *could/might* rain tomorrow.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적다)

b. It *may* very well rain tomorrow. (‘일지 모른다’: 가능성이 다소 있다)

c. It probably *will* rain tomorrow. (‘아마’: 가능성이 크다)

d. It *will* rain tomorrow. (‘틀림없이’: 확실성이 있다)

143. a. If you are a good boy, you *shall* have a cake.

b. I promise you it *shall* not happen again.

3. 반복어법에 의한 강조

반복(repetition)이란 동일 또는 유사한 음이나 어(구)를 되풀이하여

사용하는 것의 총칭으로, 의미 혹은 문장을 강조하거나 문장에 평형감을 부여하여 어조를 조정하는 등, 언어의 장식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어구의 반복을 통하여 문장의 일부를 강조하는 주요 반복어법에 관해 다루어 보겠다.

반복어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동일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첩어법인데, 다음과 같이 여러 어구가 반복 가능하다.

144. a. 동사의 반복

Fly, good Fleance, fly, fly, fly!

He *talked and talked and talked*(=He talked for a very long time).

b. 부사의 반복

I've said it *again and again*.

She talked *on and on and on*(=continuously).

c. 명사의 반복

There was nothing but *rain, rain, rain* from one week to the next.

Fog everywhere. Fog up the river; fog down the river.

d. 형용사 및 강의어구 반복

It's *horrible, horrible, horrible*.

It's *far, far* too expensive.

e. 접속사 반복

He shrank *and shivered and groaned*.

한편 어구가 다른 어구를 사이에 두고 반복될 경우 아래의 (145)처럼 반복어구와 더불어 연어(collocation)를 이루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함에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위 (144 b)와는 다른 표현인 *out and out*은 명사를 전치수식하는 강조효과를 지닌다(146).⁴²⁾

145. I am *afraid of* strain, *afraid of* transport, *afraid of* unfamiliar places.

146. He's *an out and out* liar (=an utter, throughgoing liar).

또한 앞에 있는 명사구를 대신하여 뒤에 대명사를 삽입시킴으로써, 즉 명사구가 미리 대명사를 부연 설명함으로써 반복하는 (147 a,b)의 경우도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복요소가 문장 뒤에 부가되기도 한다(148 a,b). 이러한 반복구문은 흔히 일상체에 쓰이는데, 이보다 훨씬 일상체인 주어와 운용자(subject and operator)로 이루어진 부가형(149 a,b)의 반복구문도 있다.⁴³⁾



147. a. *This man I was telling you about* - well, *he* used to live next door to me.

b. *The book I lent you* - have you finished *it* yet?

148. a. *They* are all the same, *these politicians*.

b. I wouldn't trust *him* for a moment, *your brother*.

149. a. That was a lark, *that was!*

b. He likes a drink now and then, *Jim does*.

42) R. Quirk, *et al.* (1985), *op. cit.*, p. 982.

43) *Ibid.*, p. 1417.

이외에도 (150.1)의 분사구문에서 각기 뜻은 동일하나 반복을 나타내는 (b)를 일종의 강조구문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152 a.b)같이 일단 부정문이 끝났는데도 또 부정어를 추가한 반복부정(resumptive negation)도 있다.⁴⁴⁾ 특히 'as + S + V'구문은 분사구문이 나타내는 시제 또는 시상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시제 또는 시상이 반복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구문 역시 시제, 시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종의 강조구문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150. a. Wanting a ticket, I shall apply for one at once.
 b. Wanting a ticket *as I do*, I shall apply for one at once.
151. a. Sitting at the back, we can't hear a word.
 b. Sitting *as we are* at the back, we can't hear a word.
152. a. He cannot sleep, *not* even after taking an opiate.
 b. I wouldn't let you touch me, *not* if I was starving.

4. 복수형에 의한 강조

일반복수와는 달리 정도의 강함, 넓이, 연속, 부피의 크기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통은 복수로 하지 않는 것을 복수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강조복수(intensive plural)라 한다. 바꿔말하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복수로서 정상복수(normal plural)에 대비된다. 특히 산문보다는 시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의미를

44) 정호영(1981), 「고등영문법」, 신아사, p.527.

나타내지 않고 일괄적인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policemen이라고 하는 의미의 police와 같은 집합복수(collective plural)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주로 현대영어 초기에 많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강의적으로 복수형을 가지는 강조복수는 문어적인 묘미(literary flavor)를 풍긴다.⁴⁵⁾

153. It is a thousand *pities* that you don't know.

154. We had gray *skies* throughout the vacation.

155. The moon was high in the *heavens*.

156. They walked on across the burning *sands* of the desert.

157. Where are the *snows* of last year?

158. The coldness deepened as a sound deepened into *silences*.

159. Already we are boldly launched upon the deep; but soon we shall be lost in its unshored, harborless *immensities*.

기타 *thanks, regards*(안부, 문안의 인사)나 *clouds, fogs, frosts, mists, rains, waters* 따위도 이 용법에 속한다.

45) R.Quirk, *et al.*(1985), *op.cit.*, p.299.

V. 교재 내의 강조구문의 예문 분류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강조구문의 형태와 용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어떻게 현행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현행 교과서 High School English I, II-A, II-B(장왕록 외 3인, 동아출판사, 1994)에 나오는 읽기자료(reading material)를 앞에서 다루어진 강조구문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분류, 분석해 보겠다.⁴⁶⁾

1. 강조어구에 의한 강조

1) 강의부사에 의한 강조형 예문:

1. Bill was *very surprised*, but he didn't say anything. (I 140)
2. He was *much impressed* by the work of great sculptors of the past. (A 199)
3. In *many ways* the lifestyles of the British and the American people are *much alike*. (A 230)
4. The climate here is *quite* mild even though Peru is in the tropics. (A 150)
5. Both continents are *bitterly* cold. (A 247)
cf. The day was *bitter* cold. (A 255)
6. It's *rather* difficult to tell one from the other, if you don't

46) 각 예문을 형태별로 묶어서 배열하였으며, 해당 페이지는 괄호 속에 교재 English I, II-A, II-B를 각각 I, A, B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eg English II-A의 p.140인 경우 → (A 140)

- look carefully. (B 10)
7. At first reading, the poet's fancy that the dead child is not *really* dead, but is only "playing at being dead," ----. (B 62)
8. Undersea farming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feeding the world's growing population. (B 78)
9. On hearing the words these parents became *terribly* frightened. (B 128)
10. Idleness now made him *immensely* unhappy. (B 133)
11. Atzel and Aksah were *extremely* happy. (B 135)
12. Most Japanese are *totally* ignorant of this fact. (B 254)
13. Philip felt *infinitely* unhappy. (B 262)
14. He felt *deeply* humiliated, and his cheeks became red. (B 264)

2) 비교의 강조형 예문

(1) 원급의 용례:

1. No other city in Korea is *so large as* Seoul. (I 247)
2. No language is *as widely used as* English. (B 12)
3. English is not *so easy as* you think. (B 102)
4. Return me this book *as soon as you can*. (B 165)
5. I wanted you to spend your time *as happily as could be*. (B 170)
6. He is *as poor as a church mouse*. (I 232)
7. She is *as busy as a bee*. (I 243)

(2) 비교급의 용례:

- 1.No wonder poets write *more* about spring *than* about any other season. (I 10)
- 2.It couldn't be *better* for our class picnic, today. (I 62)
- 3.I like English *better than* any other subject. (A 174)
- 4.But it has what is *more* important *than* all these. (B 61)
- 5.No man has deserved it *more than* the founder of the Red Cross. (B 210)
- 6.The Han River is *even more* beautiful than the Thames. (I 66)
- 7.Today the Thames is *far cleaner* than in past decades. (A 26)
- 8.It is *much cheaper* to take things they wanted than to trade for them. (A 76)
- 9.He is *still taller* than his mother. (A 170)

(3) 최상급의 용례:

- 1.Down there, Christmas may be the *hottest* day of the year. (I 234)
- 2.Kangaroos are the *most* famous of these animals. (I 248)
- 3.It's the second *largest* city in Brazil next to San Paulo. (A 142)
- 4.The Great Wall of China is the *biggest* structure ever built. (B 28)
- 5.We had the *greatest* difficulty imaginable. (B 105)
- 6.He made the *best* use of the opportunity. (B 201)
- 7.*cf.* A few people were killed, but *most* were saved. (A 52)

It was a *most*(=a very) enjoyable party.(A 52)

3) 의문문의 강조형 예문:

1. What *on earth* for?(I 94)
2. What *on earth* makes you hurry?(I 94)

4) 부정 의미의 강조형 예문:

1. He is not well *at all*. In other words, he needs a holiday.
(I 51)
2. Philip made so much noise that I couldn't sleep *at all*.(B 262)

2. 어순도치에 의한 강조형 예문

1) 보어를 문두에 두는 예문:

1. *The most important* was the addition of color.(I 205)
2. *Great* was their joy when they heard the news.(A 72)
3. *More valuable than things which were brought home in their ship*
were the things they brought home in their minds.(A 76)
4. *Happy* are those whose hearts are pure.(A 83)
5. *Boy as he is*, he has much experience.(B 98)

2) 부사(구)를 문두에 두는 예문:

1. If he is going, then *so am I*.(I 84)
2. *Inside a large cave* sits a 3.5-meter-high Buddha.(I 104)

3. *And so skilled* were they in their different ways that they became very rich. (I 124)
4. *Only then* does one feel that all's right with the world. (I 189)
5. *On the bed* lay a beautiful young girl. (A 83)
6. *Well* did I remember the lady. (B 34)
7. *Alongside the Seine* rests the Cathedral of Notre Dame. (B 151)
8. *cf. Down* he fell into the sea!
Down came the rain.

3) 부정어를 문두에 두는 예문:

1. *Not a sound* was heard. (I 111)
2. *No sooner* had we sat down than we had to get up again. (I 118)
3. *Never in his life* had he seen such a sword play. (I 124)
4. *Not until yesterday* did I hear the news. (A 81)
5. *Scarcely* could I help laughing at the sight. (A 105)
6. *Hardly* can any of us help tapping our feet when a band marches by in a parade. (A 108)
7. *Little* have we dreamed of her return. (B 34)

3. 수사의문문에 의한 강조형 예문:

1. *What* good are riches if I have to hide my face? (I 250)
2. *Why* can't I do both things at the same time? (I 253)
3. *What's* the use of the money to me now? (I 267)

4. The southern continent is still uninhabited. Yet, *who* knows?
(A 253)
5. Of course. *Who* doesn't?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B 149)
6. Why have you come at this time of day, Crito? *Isn't* it early?
(B 170)
7. *Why*, my dear Crito, should we care about the opinion of the world? (B 171)

4. 분열문에 의한 강조형 예문

1) 분열문의 용례:

1. *It* was yesterday that I met her in the park. (I 232)
2. *It* was you *who* wished the sausages on my nose. (I 250)
3. *It* was in this room that the meeting was held. (I 265)
4. *It* was the teachers that were happy to hear the news. (A 52)
5. *What* feeling was it that she rejected his proposal? (B 256)
6. *Why* is it that she is so happy? (B 269)
7. *When* was it that you went there? (B 269)

cf. 형식주어(Formal subject) 구문의 용례:

8. *It* is true that koala bears never drink water. (I 240)
9. *It* was good news that she had passed the final test. (I 247)
10. *It* is clear that Korean art possesses a unique aesthetic sense.
(B 246)

2) 의사분열문의 용례:

1. *What* he wants *is* not a storybook but a dictionary. (I 166)
2. *What* I am trying to say *is* that I am innocent. (A 55)
3. *What* Isaac Newton decided *was* that everything pulls on everything else with a force no one can see. (A 62)

5. 기타의 강조형 예문

1) 재귀대명사에 의한 예문:

1. ---- so that you seem to be in the picture *yourself*. (I 205)
2. The teachers *themselves* were happy to hear the news. (A 52)
3. The music *itself* makes us think of these sasonal moods. (A 111)
4. Ernest is *himself* the likeness of the Great Stone Face. (A 272)
5. She was kindness *itself*. (B 104)
6. John Asmus concluded that Leonardo *himself* painted over the necklace. (B 109)
7. I offered to carry the parcel *myself*. (B 116)
8. *cf.* ---- still hoping that some wiser and better man than *himself* would soon appear. (A 272)

2) 조동사에 의한 강조형 예문:

1. Then you *díd* read their stories. (I 119)
2. I *dó* hope you will help us. (A 72)

3. But the Vikings *did* spend a great deal of time teaching their children. (A 76)
4. *Do* come and see me. (A 83)
5. But if a fire *does* break out, you should know what to do in order to put it out quickly. (A 128)
6. He *would* have his own way in everything. (I 216)
7. "This glorious statue *must* be built!" exclaimed Eiffel when he heard Bartholdi's problem. (I 220)

3) 반복어법에 의한 강조형 예문:

1. As the ant *walked and walked*, the grain of wheat seemed to grow heavier and heavier on its weary shoulders. (I 24)
2. *More and more* people have joined the search. (I 41)
3. Why doesn't it keep going *up, up, up*? (A 60)
4. Archimedes *thought and thought*; then he *thought* more. (A 92)
5. Living *as I do* so remote from the town, I rarely have visitors. (B 231)

4) 복수형에 의한 강조형 예문:

1. Astronomers who watch the *skies* see them quite often. (I 39)
2. *Thanks* for the pretty postcards. (I 107)
3. Then the *sands* are so thirsty that they drink up all the water to the last drop. (I 235)
4. Soon he forgot everything his father had told him and flew high

- into the *heavens*. (A 44)
5. Fish and small plants live in its icy *seas*. (A 252)
6. Today man pours the *waters* of the world millions of tons of sewage, garbage, poisons, and heated water. (B 76)
7. The *waters* stretched out as far as I could see. (B 155)

6. 강조구문 분석

1)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강조구문을 학년별 읽기자료만을 분석, 그 유형별로 묶어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교 재	ENGLISH I	ENGLISH II-A	ENGLISH II-B
강조유형			
강조어구에 의한 강조	146	151	220
어순도치에 의한 강조	24	29	38
수사의문에 의한 강조	4	2	5
분열문에 의한 강조	3	2	1
기타의 강조	20	15	28

위의 통계로부터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강조어구에 의한 강조형 예문에서는 강의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최상급을 활용한 강조표현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는 의문문의 강조어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과 부정

의미의 강조어 사용도 드물다.

둘째, 어순도치에 의한 강조가 상당수 쓰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부사류를 문두에 두는 방법을 많이 볼 수 있다. 한편 분열문에 의한 방법을 일반 문법서에서는 자주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현행 교재를 분석한 결과 활용도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기타의 강조 표현 중에서는 반복어법에 의한 방법이 자주 쓰이고 있으며 특히 do를 이용한 조동사에 의한 강조가 뒤를 잇고 있다.

2) 강의사 분석

교재 English II-B에 등장하는 강조구문을 가장 흔히 쓰이는 강조의 표현인 강의사를 활용한 방법에 의하여 분석해 보겠다.

필자가 현재 다루고 있는 교재(16개 과로 구성)의 읽기자료에 강의사가 사용된 회수는 174회이다. 각 과마다 약 11개 정도의 강의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강의사가 모든 페이지마다 등장한다는 결론이다. 여기에서 조사된 강의사는 모두 43개이다:



very, a bit, rather, certainly, of course, resolutely, far, nearly, really, so, highly, most, much, fully, gravely, surely, own, in the least, such, well, obviously, indeed, almost, definitely, virtually, partly, somewhat, rarely, deeply, dearly, too, quite, hardly, totally, badly, infinitely, just, scarcely, actually, terribly, slightly, at all, a little.

위의 강의어를 Quirk and Greenbaum(1973:214)에 의하여 분류해 보면 다

음과 같다.

1. 강조사: actually, certainly, definitely, indeed, just, really, surely, obviously, of course.
2. 극대사: completely, extremely, fully, most, quite, totally.
3. 상승사: badly, dearly, deeply, far, highly, infinitely, much, so, a good deal, terribly, well.
4. 타협사: rather.
5. 감소사: partly, slightly, somewhat, a little.
6. 극소사: hardly, little, rarely, scarcely, a bit, at all, in the least.
7. 근사사: almost, nearly, virtually, as good as.

이상의 분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정된 기준으로부터 정도를 낮추는 완화사(downtoner)보다는 정도의 극대화를 나타내는 강조사(emphasizer)나 어떤 기준으로부터 정도를 높이는 확장사(amplifier)의 수가 더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결론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정도를 과장하여 자기의 진술이 사실임을 강조하고 그 특성의 정도를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VI. 결 론

언어의 주된 기능은 사회 속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자가 정보를 전달할 때 주관적 판단의 사고과정을 따라 어느 한쪽에 견해를 기울여 전달하게 된다. 예를 들면 'John cooked the dinner'처럼 통사적으로는 비강조구문이라도 그 중 어느 구성소에 특별한 강세를 줌으로써 강조를 나타낸다.

Jóhn cooked the dinner.

John *Cóoked* the dinner.

John cooked the *Dínner*.

즉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 속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구어체 언어 특유의 강조법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통사상의 여러 가지 강조표현들이 발화상황과 담화문맥 속에서 쓰이고 있음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강의어를 이용하여 강조를 표현하는 다양한 용례를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문어 보다는 구어영역에서 자주 사용된다. 비교의 표현방법을 통하여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의한 강조구문의 표현이 있으며, 의문사와 부정어를 강조하는 어구도 있다. 기타 문장의 일부를 강조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는 so와 such 및 명사를 강조하는 형용사에 관한 용법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보통의 일반적인 어순을 뒤바꿈으로써 강조하는 이른바 강조를 위한 도치의 표현방법도 쓰이고 있다. 아울러 어떠한 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어적으로 쓰여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의문문에 의한 구문상의 표현방법도 빼 놓을 수 없다.

제3장에서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쓰이는 빈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 분열문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풀어 나가면서,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갖가지 형태의 분열문을 주목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기타 발화의 번잡성과 단조로움을 없애고 문장에 변화를 주기 위한 현상의 하나인 재귀대명사가 강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용례와 조동사를 이용하여 동사를 강조하는 경우나 전 문장을 강조하는 예, 그리고 대립을 나타내는 수도 있음을 보았고, 어구의 반복을 통하여 문장의 일부를 강조하는 반복어법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도의 강함, 넓이, 연속, 부피의 크기 등을 묘사하고자 보통은 복수로 하지 않는 것을 강조를 표현하기 위하여 복수로 사용하는 강조복수의 용법을 다루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매우 다양한 강조표현의 방법에 따른 예문을 현장교육과 접목시키고 실제 응용해볼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형태에 따라서 예문을 정리하고 분석해 보았다.

서론에서도 암시했듯이 위와 같은 다양한 강조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과제로 지적해 둘 사항은 구어 영어 특유의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는 강세, 억양 및 조음방법에 의한 강조의 표현을 취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심도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결론으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을 요약하면, 화자가 문장의 어떤 특정 요소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그가 느끼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강동욱(1990), 「 현대 영문법 」, 서울: 교학사.
- 남용우(1983), “영어의 Do-form”, 「 영어교육 」 제25호, 한국영어교육학회.
- 문 용(1988), 「 영문법(II) 」,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1992), 「 고급 영문법 해설 」, 서울: 박영사.
- 이상수(1987), “영어 강조표현의 기능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연식(1979), “분열문에 관하여(On Cleft Sentences)”, 「 영어교육 」 제17호, 한국영어교육학회.
- 장왕록, 박영배, 김진철, 장덕희(1994), 「 High School English I, II -A, II-B 」, 서울: 동아출판사.
- 정호영(1981), 「 고등영문법 」, 서울: 신아사.
- 조병태, 박경수, 송병학(1980), 「 영문법 개론(I) 」, 서울: 신아사.
- 조성식(편집주간)(1990), 「 영어학 사전 」, 서울: 신아사.
- (1990), 「 영문법 연구(II) 」, 서울: 신아사.
- Curme, G.O. (1931), *Syntax*, Boston: Heath.
- (1952), *English Grammar*, New York: Barnes and Noble.
- Flower, H.W. (1931), *A Dictionary of Modern English Usage*, Oxford: Clarendon Press.
- Hornby, A.S. (1975),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nd Edition.

- Jespersen, O.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Allen.
- (1937), *Analytic Syntax*, London: Allen.
- (1956),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7vols., London: Allen.
- Moore, S., T.A.Knott and J.R.Hulbert(1965), *The Elements of Old English*, Michigan: The George Wahr Publishing Co.
- Myers, L.M.(1966), *The Roots of Modern English*, Boston: Little Brown and Co.
- Nakada, S.(1973), "Pseudo-Clefts: What Are They?" *Papers from the 9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 Quirk, R., S.Greenbaum, G.Leech and J.Svartvik(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Quirk, R. and S.Greenbaum(1973), *A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
- Quirk, R., S.Greenbaum, G.Leech and J.Svartvik(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Group Ltd.
- Swan, M.(1992), *Practical English Usage*, London:Oxford University Press.
- Sweet, H.(1924), *A New English Gramma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Thompson, A.J. and A.V.Martinet(1980), *A Practical English Gramma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Zandvoort, R.W.(1975),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London: Longmans, Green and Co.,Ltd., 7th Edition.

<Abstract>

A Study on Emphatic Construction in English

Jung Koo-pil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Tae-hong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emphatic construction and to help the learners understand why and when such expressions are used so that they can have a good command of English.

The most general ways of emphasis are by intensifiers such as emphasers, amplifiers, and downtoners. These intensifiers function as raising the import of statements or lifting the level of the feeling. In determining word order in which words are arranged in speech, the point of view of the speaker is important in emphasis. We can invert the ordinary order of the members of a sentence for the purpose of emphasis. The rhetorical question is interrogative in structure, but has the force of a strong assertion. It generall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4.

does not expect an answer.

The cleft sentence is a special construction which gives both thematic and focal prominence to a particular element of the clause. The reason for this term is that it divides a single clause into two separate sections. Dividing of a sentence with the help of 'it is' has the effect of singling out one particular element of the sentence and directing attention to it to mark a contrast.

There is non-reflexive use of the reflexive pronoun. Its use is generally called emphatic or emphasizing. In other words, we can use the reflexive pronoun for the sake of emphasis. Auxiliaries are another ways of emphasis. They as operators can carry nuclear stress to mark a finite clause as positive rather than negative. The function of this emphatic positive use of auxiliaries is to deny a negative.

In addition to these emphatic constructions there is also a way of repetition for the purpose of emphasis. We can repeat some items of a sentence, and its simplest form is merely the reiteration of a word or phrase with a view to emphasizing.

In this thesis I came to the conclusion like this: the reason why the speaker places emphasis on a particular element of a sentence is that he wants to deliver his opinion more accurately and to express what he feels or thinks more effectively.